

뉴스

경제

스포츠·연예

라이프

문화

교육

건강

트래블

기획

레이디경향

“광주·촛불, 한국 시민사회 집단지성이 엘리트보다 우월함 증명”

2012.06.12 19:01 | 페이스북 | 미투데이 | 트위터



· 6월항쟁 25주년 학술대회 온 카치아피카스 교수

“노태우는 한국을 완전한 민주주의로 이끌었다.” 미국 카네기외교유리협의회는 1987년 6월항쟁과 한국의 민주화를 평가한 보고서에서 시민들보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 개인의 결단이 핵심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은 시민사회가 취약했고, 광주항쟁은 미미한 영향만을 끼쳤다는 것이다.

조지 카치아피카스 미국 웨스트워싱턴대 교수(63)가 들려주는 서구의 한국 인식은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다. 최근 정치 상황에서의 몇몇 퇴행적 경향은 이런 평가에 냉소적 동의를 불러일으킬 법도 하다. 진보 성향으로 꼽히는 브루스 커밍스 같은 학자도 1985년 6월 총선 이후에야 한국의 시민사회가 눈을 뜨기 시작했다고 평가한다. 커밍스는 2007년 논문에서도 “한국은 아직 일본이나 미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모델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지난 8일 개최한 6월항쟁 25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 참석한 그를 만났다. <신좌파의 상상력>의 저자이자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 연구원을 겸하며 한국의 민주화를 연구해온 그는 “광주항쟁의 진압과 함께 한국에서 미국의 신자유주의 축적구조가 시작됐다”는 주장으로 유명하다. 세계적 석학인 노엄 촘스키와 함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서명에 참여하기도 했다. 카치아피카스 교수는 “카네기 보고서가 1990년대에 쓰여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한국 시민사회의 역량은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적 가치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든지, 한국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권력자의 엘리트 통치에 익숙하다든지 하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서구 중심적 사고 틀과 역사적 경험에 갇힌 탓이라고 본다. 유럽적 시민사회의 입장에 선 커밍스가 전통적 한국 사회에는 강한 시민사회가 없었다고 보는 반면, 카치아피카스 교수는 1980년 광주항쟁 시기 지식인이나 그 이전 조선시대 서원에서 육성된 지식인들도 시민사회의 일부였다고 평가한다. 식민통치 대상을 비하하면서 일반화하는 행태는 서구인들의 또 다른 ‘색안경’이다. 미국은 베트남전에 한국군을 동원하고서도 한국군이 미군보다 잔인했다는 통설을 믿고 있으며, 일본은 수많은 한국인을 징용과 위안부에까지 동원하면서도 게으르다고 비난했다.

카치아피카스 교수는 한국 사람들이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서부터 2008년 촛불시위까지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희생이 따른다 해도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믿는 정당한 목표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왔다”며 “기나긴 항쟁의 역사를 돌아보다가 한 가지 반복되는 주제가 명확해졌다”고 말한다. 그것은 바로 “일반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기존 엘리트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정권의 반대세력이 수만명의 인파를 거리에 모을 수 있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라며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시민사회를 결집시키는 역량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카치아피카스 교수의 긍정적 평가와는 달리 한국의 정치적 무관심은 심해져 가고 있다. 그는 “그간 주요 정당들이 엇비슷해 사람들은 코카콜라 아니면 펩시의 선택밖에 할 수 없었다”며 “한국민의 절반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했음에도 지난 대선에서 FTA를 반대하는 주요 정당의 후보가 없었다”고 말했다. 거

기이다 “국민의 창의성과 민주적 생활양식에 찬물을 끼얹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과 문화 통제 정책이 이어지면서 정치에 환멸을 느끼게 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교주의와 가부장제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 사회의 네트워크 역시 “서구의 개인주의적 소외와 비교하면 집단행동을 가능케 하는 공동체적 형태이지만 동시에 개인을 사회체계의 고정된 자리에 묶어두는 도구”이기도 하다는 것이 카치아피카스 교수의 생각이다. 이를테면 명목상으로 여성들이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운동에 참여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했던 사례가 2008년 민주노총 성폭력 사태 같은 경우라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사태를 보면 오늘날에도 이 같은 퇴행은 계속되고 있다. 카치아피카스 교수는 “정치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상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표만 가지고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시위와 대안적 제도 조직은 물론이고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서점이나 뮤직센터 같은 공간, 즉 사회문화적 인프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카치아피카스 교수는 고 김근태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며 한국 시민사회의 역동성을 강조했다. 김근태는 이렇게 말했다. “6월항쟁 이전에는 한국인들이 일본인에 비해 열등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동등하다고 생각하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민주화는 국민들이 쟁취했기 때문에 맥아더의 독재를 통해 얻은 일본의 민주주의보다 깊다고 생각한다.”

카치아피카스 교수는 “한국은 태국·버마·스리랑카·동티모르 등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싸우는 이들의 역할 모델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영감을 줄 수 있는 민주사회의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황경상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 경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각시탈, 이것 알고 보면 100배 재밌다
- ▶ '정리의 신'에게 배우는 정리 잘하는법 12가지
- ▶ 튼실한 팔뚝 허벅지살, 2주만에 없애는 방법?

오늘의 핫클릭

“여자복싱 세계챔피언, 체육관원 폭행”... 무슨 일?	>
이해찬 “MB정부는 비리·실패 정부...나라 망친 4년”	>
각국 증시 상승... 코스피도 급등, 환율 하락	>

“우리 닭이 보라색 달걀을 낳아요”



[쌍용차 해고자의 눈물]상처는 똑같다



맨위로

목록으로 | 페이스북 | 미투데이 | 트위터

문화 인기기사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비키니를 입은 이유?



버스커버스커가 직접 그린 ‘여수밤바다’ 그림 화제



“겨울철새 두루미, 조선시대 선비들이 애완동물로 키웠다”



총명한 사도세자의 영조 향한 효심



0/250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댓글등록

▶ 로그인 후 여러 SNS로 댓글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댓글 삭제기준 보기](#)

powered by **LiveRe**

Advertisement

진실을 읽다

Copyright © khan. All rights reserved.

PC버전